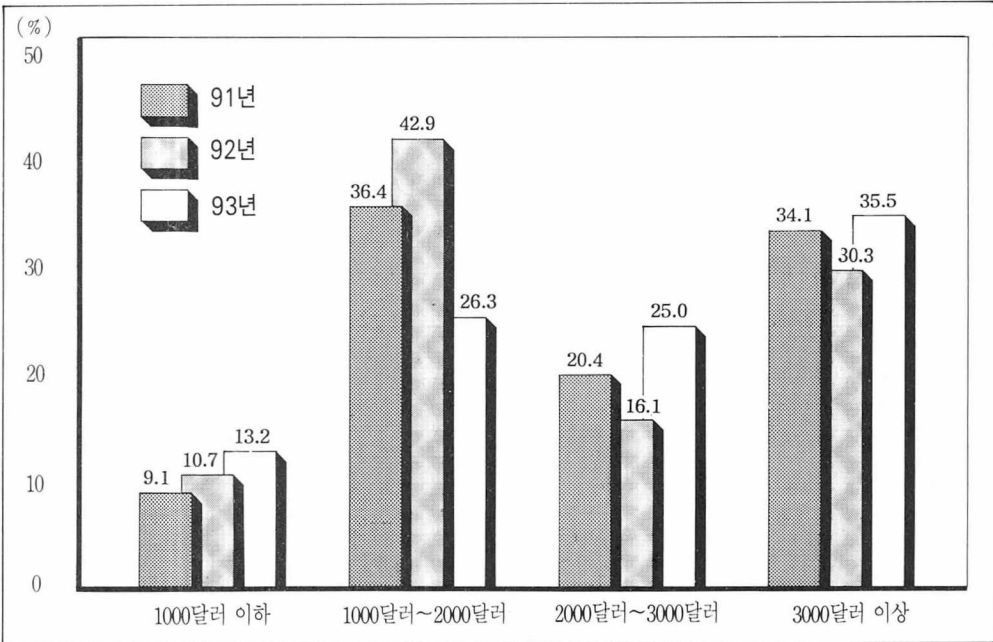


# 외국저작권사용료 고액화 추세 뚜렷

에이전시들간의 과당경쟁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출판사별 최고선불금 현황

국내 출판사들은 외국 출판물의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 대체로 선불금을 지불한 뒤 인세를 지급하며, 3000달러 이상의 높은 선불금을 거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가 최근 3년간 304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저작권의 사용료를 지급할 때 선불금과 인세 지급방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79.8%, 인세방식에만 의하는 경우가 15.0%, 기타 계약금의 지급 및 연말 정산으로 처리하거나 예상출판부수에 따른 인세지급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5.3%로 나타났다. 또한 78.9%의 출판사가 지난 3년간 안정적인 6~8%의 인세를 지급해 왔다고 대답한 반면, 선불금은 1000~2000달러 정도가 주조를 이루었던 91년에 비하여 300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출판사가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도표 참조).

수입국별 선불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서적을 도입할 때에는 200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1000달러 내외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국별 인세율에 있어서는 미국·유럽·기타 지역에는 대다수가 6~8%의 인세를 지급하고, 일본의 경우 91, 92년에는 3~5% 인세가 과반수였으나 93년에 이르러서는 6~8% 인세가 52%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인세율은 6~8% 선에서 결

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도표 참조).

### 인세율은 6~8%, 선불금은 고액화

이미 20만 달러를 지급한 알란 폴섬의 「모레」(서적포)에 이어, 도서출판 삼성이 21만 달러의 선불금으로 빌 게이츠의 「The Road Ahead」 국내 출판권을 따내 출판가에 화제를 뿌린 바 있다. 이 일을 기폭제로 에이전시들간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당사가 지불하고 있는 저작권 사용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정하다'는 대답이 54.2%, '과다한 편이다' 38.9%, '매우 과다하다' 2.3%, '매우 낮다' 0.8%로 집계돼, 58.8%에 해당하는 출판사가 현재의 저작권 사용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업체도 41.2%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한 서적의 수입을 두고 국내의 다른 출판사와 경쟁한 주된 이유로는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35.9%, '예상 수요독자가 많아서' 30.4%, '경쟁사가 있음을 알지 못해서' 21.7%, '에이전시의 권유' 5.4%, '출판사의 이미지 제고'가 4.4%로 나타났다.

외국 저작물의 출판정보 획득경로에 대해서는 자체 정보수집이 36.4%, 국내의 에이전시를 통하는 경우가 29.5%, 관련서적·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23.0%, 국제 도서전시회를 통하는 경우가 7.3%, 기타 전문가의 추천,

상당수의 출판사가 외국저작물의 출판정보를 얻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에는 선불금과 인세 지급방식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79.8%)이며, 현재 고액화되고 있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출판사도 꽤 많은(41.2%) 것으로 집계됐다.

번역자 및 지인의 소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적수입에 관한 교섭 및 계약 창구로는 에이전시를 통하는 경우가 65.1%나 됐고 외국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23.3%, 에이전시의 소개와 저작권자와의 직접계약을 병행하는 경우, 번역자나 지인을 통하는 경우가 11.6%로 나타나 상당수의 출판사가 정보획득 및 계약성사를 위해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이전시의 이용현황은 91년도에 42%에 불과했던 건수가 무려 65.1%로 늘어 매년 10% 이상씩의 증가율을 보였다. 에이전시를 이용했을 때의 효용·장점으로는 '절차가 간편·신속하다' '정보수집 및 활용이 용이하다' '인력이 절감된다' '계약 및 사후관리가 용이하다'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단점으로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수료 지급 등의 비용이 과다하다' '수입하고자 하는 서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에이전시가 취급하는 서적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등의 대답이 나왔다.

### '저작권 관련 전담직원 없다' 72.7%나 돼

한편 서적수입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독자의 예상수요가 42.1%, 학술적 가치 및 전문성이 22.2%, 저자의 지명도가 16.5%, 저작권료가 8.3%, 외국의 베스트셀러가 7.5%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서적수입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증가

		91년		92년		93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미국	3~5%	10	5.3	11	5.5	28	10.7
	6~8%	135	71.8	165	82.9	198	75.6
	8% 초과	43	22.9	22	11.1	36	13.7
일본	3~5%	64	56.1	66	54.4	74	43.3
	6~8%	45	39.5	53	43.8	89	52.0
	8% 초과	2	1.8	2	1.7	2	1.2
유럽	3~5%	2	5.7	3	6.3	17	16.3
	6~8%	33	94.3	44	91.7	81	77.9
	8% 초과	0	0.0	1	2.0	5	4.8
기타	3~5%	1	8.3	2	1.4	4	1.8
	6~8%	10	83.4	172	98.6	213	98.2
	8% 초과	1	8.3	0	0.0	0	0.0
계		315		499		631	

수입국별 인세율 지급현황

시킬 계획이 있다' 43.7%, '특별히 증가시킬 계획은 없다' 28.2%,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 21.5%, '감소시킬 예정이다' 4.4%로 대답해 대부분의 출판사는 외국서적의 수입증가에 관하여 적극적이거나 적어도 소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작 저작권 관련 전담직원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7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성을 결여하게 되어 향후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저작권 이용기간은 4~6년이 57.5%, 3년 이하가 19.7%, 7~9년이 10.2%, 10년 이상이 7.9%로 나타나 저작권 사용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내용으로는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93.6%이고 저작권의 양수는 5.6%에 불과하며, 이용범위로는 번역권 및 출판권 이용이 91.5%, 복제권 및 배포권은 5.4%로 나타났다. 외국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과당경쟁 방지방안 수립' '에이전시의 업무능력 개선(대형화·횡포 근절)' '적정 저작권 사용료 지급기준 설정' '외국 베스트셀러의 무분별한 수입 지양' '외국 저작물에 관한 정보센터 설치'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리한 계약조건 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증진' '불법복제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등의 순으로 제안됐다.

—한 강 기자